

## 국민과 국가를 넘어, 아시아 공동체로

곧 졸업을 앞둔 나는 수강신청을 하기 한참 전부터 '마지막 학기에 무슨 과목을 들어야하나', 하고 졸곧 고민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학기 박성빈 교수님께서 '아시아공동체론'이란 강의를 추천해 주셨던 것이 기억나기도 했고, 세미나 형식의 강의는 이제껏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해당 강의를 신청했었다. 사실 처음엔 이 강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아시아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확립된 것이 아니었으며, 이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도 제각각 달랐고, 교수님들께서 해주시는 강의들은 이를 다각면에서 다루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을 당시에라도 각각의 주제들은 몹시 흥미로웠다. 문학을 통해 본 재일교포들의 삶, 6.25 전쟁당시 북한을 지원했던 모택동과 스탈린의 상황, 최근 한일 관계의 변화, 그리고 오늘날 점차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 지역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까지. 주제 자체로도 흥미로웠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교수님들께서 해주시는 강의이다 보니 실태와 현황을 상세히 알 수 있었고 그러다보니 이해도 더욱 잘 되었다. 그러던 중에 정준곤 박사님께서 '지금 왜 아시아 공동체인가'라는 주제로 한시간 가량의 짧은 강의를 해 주셨는데, 이 강의를 들으며 그동안 들었던 다른 강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 아시아 공동체론이라는 강의의 윤곽이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편협한 민족국가와 국민의 개념을 넘어 아시아라는 상위 개념 하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며, 이 강의는 그것으로 가기 위한 인식의 첫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 공동체는 지구촌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더러 존재한다. 수업시간에도 가끔 등장했던 질문이었고 나 역시도 박사님께서 본격적으로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전까진 '왜 굳이 아시아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해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오늘날 경제 시스템은 글로벌화하고 있으나 정치 시스템은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둘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전지구적 제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몹시 어려우며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선 제도적·내면적 장벽을 뛰어넘는 개념인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만 하는 것이다.

경제 통합의 단계는 크게 다섯 개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흔히 알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이고, 그 다음은 차례대로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오늘날 EU가 현재 이 단계에 있다.)의 단계를 거쳐 마지막엔 완전경제통합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인 단일경제체제를 이루기 위해선 사실상 정치적 동맹 및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정치적 통합으로 귀결된다. 아시아 공동체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늘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아시아 공동체로 가기 위한 그 첫번째 단계이며 컨퍼런스에서 언급되었던 CMIM는 그보다 좀 더 진보된 형태의 통합이다.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각양각색의 주제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적 측면에서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이 모든 것들은 아시아 전체로의 정치적 · 경제적 통합을 향한 발걸음이었던 것이다. 이 수업을 듣게 된 것도 우리가 미래를 책임지게 될 아시아의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연적인 과정이었던 것 같다. 젊은 세대들의 인식의 틀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사고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이 수업은 결과적으로 아시아, 더 나아가서 전지구적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에게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업이었다.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에 아시아 공동체론이란 수업을 통해 나의 시각을 전폭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서 행운이란 생각이 들었다. 편협한 사고를 벗어나 더 넓은 시각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아시아 공동체론은 해외무역관으로의 꿈을 갖고 있는 나에겐 특히나 더 큰 의미가 있는 수업이었다. 이런 귀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주신 교수님들과 원아시아 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